

# 청소년 한부모의 일과 삶의 실태와 현실 :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효과\*

A Study on the Work and Life Conditions of Single, Young Parents : The Effect of Vocational Education and Public nanny service Support on Full-time Employment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부교수 이윤정\*\*

Dept. of Social Welfare, Hoseo Univ.  
Associate professor Yoon Jung Lee

## 〈목 차〉

- |                |            |
|----------------|------------|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IV. 연구결과   |
| II. 선행연구 고찰    | V. 요약 및 결론 |
| III. 연구방법      | 참고문헌       |

##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examine the impact of academic background on full-time employment and on other important issues concerning job security and care faced by single-parent youths. The study also aimed to verify the effect of related support on full-time employment. The analysis targeted 262 single parents under 24 years of age who were raising their children, and the main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adulthood was high for those who were employed, and the academic achievement of full-time workers was also significantly high. However, the rate of discontinuities in school was also high among those who were employed, especially those seeking full-time employment, whose desire to stay in school was higher than that of other difficulties of single, teenage parents. Second, the vocational education experience of single, teenage parents was 32 percent overall, and the rate of those seeking full-time employment was also relatively high, reaching 44 percent. However, the results of this study did not verify the direct effect of vocational education experience on full-time employment nor the interaction effect of the academic background. Therefore, a thorough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a vocational education program for young, single parents wishing to gain employment is necessary. Third, the overall rate of those who received a public nanny service was 31 percent, while the rate of full-time workers

\* 이 논문은 2018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018-0348).

\*\* 주저자, 교신저자 : 이윤정(yoon2525@hoseo.edu)

who experienced this service was significantly higher reaching 59 percent. In the research model verification, single parents who received a public nanny service were 3.8 times more likely to get a full-time job than those who did not, and receiving a public nanny service showed a regulatory effect between academic studies and full-time employment. The higher the academic level of the parents, the higher their possibility of full-time employment.

**Key Words** : 청소년 한부모(adolescent single-parent), 취업(employment), 학업(schoolwork), 직업교육(vocational education), 아이돌봄 서비스(public nanny service)

## I.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인구 고령화와 더불어 저출산 문제는 한국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어 국가의 노력이 정책화되고 있으며, 이에 가입기 여성의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여성들은 여전히 환영받지 못한 채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을 경험하며 자신이 선택한 길에 대해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비난과 낙인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과거 10대 미혼모라 불리던 청소년 한부모이다.

국내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출산이나 비율에 관해 아직까지 명확한 통계 예측이 어렵다. 다만, 혼인의 출산율이나 연령별 분만 건수를 통해 그 규모를 추정할 뿐이다. 대신 OECD국가 비교 자료를 통해 상황을 가늠할 수 있는데,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이 50%에 달하는 프랑스와 스웨덴 등과 비교해 한국은 1.5%이며, 15세~19세 청소년 1천 명당 출생아 수는 OECD 국가 평균인 27명과 비교해 한국은 5.09명이다. 이러한 비교는 한국의 상황이 그리 심각한 수준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한다. 그러나 간과할 수 없는 지점은 이들의 증가율에 있다. 최근 10여 년 간 청소년 출산율은 2배 이상 증가했으며(김지연, 2014; OECD Family Database, 2016a), 동시에 출산 후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기로 결정한 이른바 ‘부모됨’의 길을 선택한 청소년 한부모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은 정책적으로 2010년부터 한부모가

족지원법령을 근거로 이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시작하였다. 법령 내 청소년 한부모는 ‘18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 모 혹은 부’로 정의되며,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대상 범위에 포함되어 있다(국가법령정보센터, 2018).

현재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수는 1만 6천여 가구가 넘는다. 이 중 저소득 청소년 한부모 가구는 2,419가구로 추정된다(여성가족부, 2018a). 이러한 수치는 150만 3천 가구에 달하는 한부모가구 규모의 약 1%에 해당되며, 미혼모부 규모(30,489명)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이다(통계청, 2018). 청소년 한부모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학업 지속자보다 중단자의 비율이 높고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경우가 많아 70% 이상이며, 한부모 가정에서 생활한 이들의 비율이 30%에 가깝다. 즉, 이전의 아동기부터 가족의 구조적 결핍 혹은 기능적 결핍 상황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이윤정, 2017a). 이에 입양이 아닌 양육을 결정한 다수의 청소년 한부모들은 가족의 지지를 얻지 못하고 단절된 상태임이 보고되고 있다(김지연, 2013). 즉, 고립과 빈곤 위기에 놓이는 현실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발달과업으로써의 학업과 진로에 대한 탐색은 온전히 수행되기가 어렵고,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 그리고 직업의 안정 등 성인기 발달과업까지 가중되어 학업과 취업, 양육의 삼중고를 경험하게 된다.

한편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국·내외 연구들을 살

해보면, 과거 10대 미혼모라는 명칭으로 연구한 자료를 제외하고는 정책적으로 자립지원 대상으로 이들을 조명하고 현실과 주요 이슈를 검토한 연구는 최근에 발견된다. 국외 연구에서는 청소년기에 부모가 되어 경험하게 되는 양육 행동에 원가정이나 배우자의 지지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Contreras, 2004), 그리고 재가 프로그램 개입이 이들 심리정서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내용들이 보고되고 있다(Dhayanandhan, Bohr & Connolly, 2015; Easterbrooks, Kotake, Raskin & Bumgarner, 2016). 국내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개인 및 환경 특성이 부모효능감에 작용하는 영향을 파악하거나 자녀 양육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연구(김지연·백혜정, 2014), 시설입소나 정책지원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나 학업지속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 검증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이경란·최정숙, 2017; 이윤정, 2017a; 이윤정, 2017b; 이윤정, 2017c). 이처럼 미혼모의 관점이 아닌 기능하는 부모로서 청소년 한부모를 바라보고 가족 이외의 지역사회나 국가적 지원을 논하고 효과를 검증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로, 이들의 지속가능한 자립을 위해 어떠한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지 검증한 연구는 시작 단계라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청소년 한부모에 관한 선행 연구 동향과 시대적 화두를 고려하여 취업과 자녀 돌봄에 있어 가장 취약하다고 볼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 그리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사회적 지원이 어떻게 접근되어야 하는 지 그 출발점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아직까지 한국 내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대부분의 정책적 지원은 양육과 학업, 취업을 위한 수당지급 형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돌봄 지원을 위한 서비스로는 아이돌봄지원법령을 근거로 아이돌봄 서비스의 우선권이 주어지는 정도이다. 이에 연구자는 한부모 중에서도 연령이나 학력 면에서 가장 위기적 상황에 놓일 수 있는 청소년 한부모에게, 그리고 아직은 가족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부모에

게 그러한 환경이 부모로서 기능하도록 하고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자립하게 하는 데 효과적이냐 하는 측면에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2010년부터 시작된 청소년 한부모 가족 지원 정책(여성가족부, 2019)의 방향성과 수정의 근거 논점이 검토될 시기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궁극적으로 정책 지원의 방향은 청소년 한부모가 부모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자립할 수 있는 학력을 갖추고 안정된 직업을 통해 삶의 질을 온전히 유지하도록 함에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행한 ‘청소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청소년 한부모의 일과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 중 취업의 안정성 그리고 돌봄에 관한 내용을 주로 다루어 보고자 한다. 즉, 현재 청소년 한부모가 지니고 있는 학력 수준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인적 경험과 사회적 지원의 효과가 어떠한 지 검증함이 목적이다. 구체적으로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이 학력과 정규직 취업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지 분석할 것이다. 이 같은 연구 목적을 토대로 구체적인 연구 문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취업 특성, 직업교육과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은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무엇인가? 학력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지니는가? 학력과 정규직 취업 간의 관계에서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효과는 어떠한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취업과 돌봄 정책

한부모 수의 증가는 한국의 상황만이 아니어서 해외 여러 국가에서도 그 유형의 다양함과 더불어 자녀양육에 관한 이슈들을 신사회적 위협의 하나로 거

론하고 있다.

한부모 유형 중에서도 미혼모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영국, 노르웨이, 동독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체 미혼모 중 특히 청소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국가는 불가리아와 영국, 폴란드, 아일랜드 등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OECD Family Database, 2016a, 2016b). 청소년 한부모 비율이 증가하는 국가에서는 이들의 사회적 배제를 최소화하는 예방적 정책을 강조하고 있어(김혜영 외, 2009), 자녀 양육과 경제적 자립에 초점을 둔 이혼이나 사별로 인한 한부모 정책에 별도의 영역이 부가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부모 가정은 다른 유형의 가정보다 빈곤할 가능성이 높는데, 한부모 가정의 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에서는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가 차지하는 비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는 다른 한부모 유형보다 연령이 낮고 자립력을 갖추고 있지 못해 취업에 취약한 상황임으로 경제적 빈곤의 가능성이 높은 대상이어서 이들을 위한 정책은 자립 강화를 위한 기초 단계에서 취약 요인을 보강하기 위한 인적 자원 개발 등의 지원(예, 학업 지원)이 추가되어야 한다.

한부모들은 대학교육과 같은 고등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곧 정상적 삶에 장애 요인이 있음을 유추할 수 있는데, 한부모의 낮은 교육 수준은 노동시장으로의 접근성을 낮추고 결

국 연쇄적 어려움에 처하게 만든다. 이러한 현상은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에게 더욱 심각해지는데 실제로 청소년 출산과 미혼모가 상대적으로 많은 영국이나 아일랜드, 동독, 폴란드에서는 이들의 교육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European Commission, 2007;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에서 재인용). 이러한 현상으로 청소년 한부모 계층은 안정적 직업을 얻기 위한 기술적인 수준을 갖추지 못한 채 노동시장에서 임금 수준이 낮거나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게 되어 일상적인 생활 유지가 어려운 취약 상황에 놓이게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이들을 위한 지원을 수당 형식으로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노동시장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가야할 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영국과 아일랜드의 경우 비취업 한부모 여성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특히 미혼모의 경우 경제 활동을 하지 않거나 실업 상태인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에서 배제 받고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즉, 미혼모의 경우 다른 유형의 부모들보다 빈곤의 위험도가 높다는 것이다. 그 중 연령이 낮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욱 열악하여 한부모 내에서도 가장 취약한 대상이 된다. 이로써 유럽의 한부모 정책은 이들이 취약위기 상황으로부터 탈피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는 즉, 빈곤의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회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강지원, 2009). 또

〈표 1〉 주요 국가의 한부모 유형별 빈곤률 비교

(단위 : %)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최저 빈곤 상태	커플부부 15	부자가정 8	부자가정 0	커플부부 5	커플부부 3
	부자가정 16	커플부부 12	커플부부 31	사별여성 6	사별여성 7
↕	이혼여성 20	사별여성 21	사별여성 33	부자가정 9	부자가정 14
	사별여성 22	미혼모 27	이혼여성 35	미혼모 14	이혼여성 22
최고 빈곤 상태	미혼모 37	이혼여성 33	미혼모 83	이혼여성 15	미혼모 24

출처 : European Commission(2007).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mong lone-parent household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에서 재구성

한 한부모에게 가해지는 낙인효과를 지양하고 사회 통합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다른 가족 유형과 함께 동일 선상에서 지원하므로, 청소년 한부모 역시 그 대상 범위에 속해 생활한다. 즉,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 틀 안에서 노동, 자녀교육, 빈곤 등 일반적인 이슈들을 다루면서 가족을 보호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개인의 지위와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가운데, 한부모에게는 그들이 처한 특수한 장애요인들이 제거 혹은 완화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여러 나라들의 한부모 정책, 특히 경제적 지원이나 취업 지원에 대한 정책방향은 크게 2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수당 등의 지급을 통해 금전적 지원을 하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근로를 활성화하여 경제적 자립력을 키우도록 하는 측면이다. 그러나 금전적 지원에 있어서는 한부모 가족이 사회보장 수혜에 의존하여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으며(김혜영 외, 2009). 근로 활성화 지원에서는 한부모가 낮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며 저임금과 불안정한 일자리를 얻게 되어 결국 빈곤의 위험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Milewski et al., 2005;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에서 재인용). 노동시장 내 이러한 취약성은 특히 나이가 어리고 기초적인 교육 수준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수당 지급 형식의 금전적 지원이 한부모의 근로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이유로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로 인해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한부모들의 수당 지원 조건을 강화하며 급여 수준을 낮추고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는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등의 복지 정책을 펼쳐 나갔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오히려 한부모들을 노동시장에 내몰게 하여 아동의 빈곤과,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킨다는 부작용이 발견되어(이수연, 2000), 한부모가 보다 양질의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시

스템을 갖추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게 되었다.

이와는 달리, 유럽의 한부모 대상 현금 수당 지원정책은 보편적인 가족 수당 정책의 성격을 지닌다. 가족에 대한 전반적인 경제적 지원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한부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수당 지급은 거의 없다. 즉, 유럽 국가에서 한부모에 대한 경제적 지원은 자녀를 양육하는 모든 가정에 대한 지원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한부모라는 이유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지닌 취약성과 욕구에 근거하여 ‘가족 정책’이라는 틀을 통해 빈곤, 자녀 양육, 취업, 주거 등 일상적인 가족생활을 유지함에 있어 갖게 되는 복잡한 문제들을 지원하고자 한다. 물론 1990년대 이후 고용 정책에 대한 유럽 국가들의 전략 재정비로 한부모의 근로 활성화 정책이 강화되기는 하였지만 미국과 비교해 유연한 가족 정책으로 통합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강지원, 2009).

예를 들어, 영국은 한부모 정책이 근로 활성화 정책과 함께 조세 감면, 영유아 보육 지원 등 사회통합 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에게 근로 조건을 부여함에 있어 자발성에 기초하여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노르웨이는 한부모에 대해 근로와 연결된 수당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영아 보육에 대한 시설 서비스 지원 정책도 병행하고 있다. 프랑스 역시 한부모 가족을 근로 활성화 정책 대상의 하나로 간주하며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금전상의 유인을 제공함과 동시에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관련 정책을 펴나가고 있다(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2).

한국의 경우 아직 뚜렷한 기초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 가족복지를 추구하는 정책의 방향으로 청소년 한부모는 근거 법령인 한부모가족지원법을 통해 명문화되어 주요 사업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 이에 청소년 한부모는 기존 한부모가족지원 정책에 낮은 연령이나 학력 등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자녀 양육과 학업, 자립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검정고

시 학습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고교생 교육비 지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촉진 수당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8b). 주로 금전을 통한 경제적 지원으로 아직 근로 활성화와 연계하는 방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

한편,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근로 활성화 정책은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직면해 보육서비스 지원을 더욱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게 하였다. 이에 따라 각 나라이들은 한부모들의 노동시장 진입 정책을 자녀 보육 지원 정책과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김혜영 외, 2009). 한부모들은 자녀 양육을 위해 노동시장에 참여할 필요성이 큰 반면, 일-가정의 양립 특히 자녀 보육에 있어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 더욱이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가족 관계망 혹은 사회적 관계망에 있어 취약성을 보이고 있어, 일-가정 양립에 따르는 자녀 보육의 문제를 그러한 관계망에 기대할 수 없어 열악한 상황이다.

유럽 국가에서는 보육서비스 지원 정책을 금전적 보육 수당이나 보육서비스 제공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와 마찬가지로 한부모들에게 보육서비스 이용의 우선권을 제공하고 있다(김혜영 외, 2009). 이러한 보육 지원 정책 역시 한부모만을 특정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자녀양육 지원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한부모가족 지원 정책이 주는 시사점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한부모의 어려움이 양질의 근로를 통해 적절한 소득 보장으로 이어져 완충되도록 한다는 점으로, 가정에서의 책임을 다하며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삶의 질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는 것에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의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보육서비스 지원은 아직 금전적 지원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2012년에 제정된 아이돌봄지원 법령을 근거로 아이돌봄 서비스를 통해 학업과 가정,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지원 제도는 갖추고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 서비스 형태를 띠며 전국 시도,

시군구에서 지원되고 있는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가정 내 자녀를 위한 복지와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목적으로 일시적 돌봄 상황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개별 보육이 이루어지도록 지원한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특징적인 것은 아이돌보미를 통해 단순 보육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 가정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관리는 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지역의 가족문제에 대한 갈등 개선 프로그램이나 긴급지원 복지서비스를 연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점이다. 가정의 심리정서적 돌봄 기능을 모니터링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회적 제재라 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자녀의 연령이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아동의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 1대 1로 돌보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서비스 형태는 2가지가 있는데, 임시보육이나 놀이, 식사나 간식 챙기기, 보육시설 하원 등의 일반적 돌봄서비스로 진행되는 일반형과 이에 추가적으로 가사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종합형으로 구분된다. 이용자는 이 중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 신청절차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된 후, 거주지역 내 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소득판정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달리하여 이용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의 주요 대상인 청소년 한부모는 정부지원 대상 기준에 포함되어 '부 또는 모가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취업준비(학원수강 등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함) 중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수혜 가능한 대상이다(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 2019; 이윤정, 2017d). 아이돌봄 서비스는 청소년 한부모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학업을 지속하거나 취업을 준비할 때 유용한 사회적 지원이 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한부모가 양육하는 자녀에게만이 아니라, 아직은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청소년기에 속해 있는 청소년 한부모의 취약한 가족 자원도 보완할 수 있는 돌봄 자원이기도 하다.

## 2.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선행 연구를 통한 검증이 미흡하여 한부모를 대상으로 하거나 기혼여성의 취업 결정요인을 밝혀온 연구들을 통해 정리해 볼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거론되고 있는 요인들로는 연령이나 학력 등의 경력 변인과 건강상태, 취업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경험, 자녀의 연령이나 취학여부, 자녀의 수 혹은 자녀를 대신 돌볼 수 있는 인적 자원 보유에 관한 변인들이다(박수미, 2002; 여지영, 2003; 김우영·권현지, 2008; 박현순·나동석, 2009; 이정원, 2000; 서명선, 2002; 윤성호, 2008; 정민경, 2008; 이재열, 1996; 김영옥, 2007; 오영훈, 2007). 각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와 분석 대상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는 있으나, 청소년 한부모의 상황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정리해 본다면, 이들의 취업에는 연령과 학력, 건강상태, 취업교육이나 훈련에 관한 관계성이나 영향력, 그리고 자녀양육과 관련된 돌봄 관련 변인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앞서 청소년 한부모의 가족과 사회적 지원망의 취약성을 근거로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이 어떠한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지 언급했으므로, 본 순서에서는 연령과 학력, 건강상태, 취업교육 및 훈련의 영향력에 중점을 두어 연구동향을 설명하고자 한다.

취업에 있어 연령은 일반적으로 경력의 대리변수로 활용되고 있다(박수미, 2002; 여지영, 2003). 그러나 여성의 연령은 남성과 달리 가족생애주기상으로 결혼이나 자녀의 연령과 관련되어 경력보다는 가정 내 돌봄 요구도에 따른 경제활동 여부의 예측 변인으로 작용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여성의 연령에 따른 경제활동 비율로 M자 형태를 띠게 되는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우영과 권현지(2008)는 여성의 취업형태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연구하여 연령이 높고, 기혼자일수록 비정규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생계를 책임지는 한부모 여성에게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

렵다. 일반 기혼 여성과는 달리 한부모 여성은 지속적인 취업이 필요하므로 연령이 남성과 같은 경력의 의미를 가질 수도 있어 연령이 높을수록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박현순과 나동석(2009)의 연구를 통해 한부모의 연령이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검증되지 않아 지지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 일반 한부모와 달리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가족과 사회적 지지 체계가 약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경제적 빈곤의 위험도가 높아 법적 노동가능 연령부터 취업을 희망하거나 구직의 가능성이 있고(김지연, 2014), 연령이 성년에 도달하였을 경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진입에 더욱 큰 욕구를 지니고 취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용우·양호정, 2017). 그러므로 아직까지 선행 연구에서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는 어렵지만 청소년 한부모 대상의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른 영향력을 배제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건강상태 혹은 건강수준은 취업에 있어 중요한 요소로 밝혀져 왔다. 선행연구들은 저소득 모자 가정의 가구주의 경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정규직에 취업할 가능성이 높고(이정원, 2000; 서명선, 2002), 일반 여성 가구주의 경우 자영업이나 임시 일용직보다는 상용직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였다(윤성호, 2008). 정민경(2008) 역시 같은 맥락으로 여성 가구주의 건강상태는 취업유무, 취업형태와 임금수준에도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박현순과 나동석(2009)의 연구에서도 한부모의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취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여 청소년 한부모에게서도 유사한 경향이 발견될 수 있다고 본다.

학력의 경우 기혼 여성의 학력은 배우자를 통한 소득에 대해 간접효과를 가지며 한부모 여성도 이전 배우자의 사회적 지위를 통해 이러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고, 대졸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닌 여성들은 비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로 이행하는 확률이 낮다는 연구(이재열, 1996), 혹은 고졸 학력

의 여성에게서 비취업 지속기간이 길어진다고 주장하는 연구(김영옥, 2007)가 발견되지만 이러한 선행 연구들로 학력과 취업에 관한 일관된 경향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한편, 박현순과 나동석(2009)은 한부모 여성을 대상으로 학력은 인적자본으로서 기능하지 못한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 즉, 한부모 여성의 경우 취업경력이 단절되었을 가능성으로 인해 학력이나 연령의 경력 변수보다는 양호한 건강상태, 직업훈련에 대한 경험이 유의미하게 취업의 가능성을 높인다고 설명한다. 더불어 그들은 연령 증가와 학력이 높아짐에 의해 경력이 쌓이거나 근로소득이 늘어나는 것, 그리고 이전에 어떠한 취업형태를 지냈었는가가 현재 경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 등의 인적자본의 기능은 가족생애주기에서 급한 사건을 경험하는 한부모 여성에게는 유의한 영향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일한 연구에서 다시 정규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취업형태를 종속변인으로 하여 학력 변인의 영향력을 검증한 모형에서는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 취업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취업교육이나 훈련의 영향에 대해서도 뚜렷한 경향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오영훈(2007)은 취업교육이나 훈련이 취업 가능성을 높일 것인지는 소득계층 간 차이로 인해 다르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비빈곤층이 빈곤층에 비하여 관련 경험을 하였을 경우 취업의 확률이 높았고, 수급자에 비하여 비수급자의 취업 확률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리고 동일한 연구에서 생계책임에 대한 부담요인이나 한부모 특성이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밝히고 있다. 한편 박현순과 나동석(2009)의 연구에서는 한부모 여성의 직업훈련 경험이 취업과 정적 관련성을 나타내기는 하나, 유의미한 수준으로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까지 밝혀지지는 않았다.

### III. 연구방법

#### 1.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청소년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실태 조사’ 원자료 중 일부이다. 이 자료는, 2012년 6월부터 9월까지 약 3개월에 걸쳐 대인면접방식으로 수집된 내용이다.

조사결과는 이미 발표되어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나, 일부 민감한 설문 내용으로 인해 원자료는 비공개인 상태였다. 이에 연구자는 본 연구의 목적과 활용의도를 기관 측에 밝히고 주요 변수들이 포함된 코딩자료를 입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조사한 원자료의 수집 목적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있었으므로, 대상에 대한 정의를 폭넓게 하여 24세 이하의 당시 임신 중인 청소년으로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자와 자녀 양육을 계획하고 있는 자, 과거 임신 및 낙태의 경험이 있거나 출산 이후 입양 등 양육포기 경험이 있는 자, 현재 자녀를 출산 해 양육하고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였으며, 입수된 자료의 응답자 수는 총 457명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연구목적에 부합한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청소년 한부모 262명을 선별한 후,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업 및 취업(교육 및 훈련) 상황,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에 관한 내용을 변인으로 추출하여 연구 모형 검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한부모의 연령 기준을 ‘한부모가족지원법’ 내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24세 이하로 한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여성 청소년 한부모이다. 법률상 청소년 한부모는 미혼, 이혼, 사별 등 한부모가 된 경로에 관계없이 1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남녀 한부모를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수집한 자료에 기반하므로, 조사 당시



응답자 전원이 여성이어서 남성은 분석 자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 2. 측정 도구

### 1) 인구사회적 특성

원자료에서 연령 관련 변인은 생년월일을 묻는 문항에서 별도의 산술방식으로 생성해내었다. 원자료의 설문지에는 응답자의 출생 연도와 출생 월을 기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연구자는 출생 연도에서 조사 당시의 연도를 비교해 산술로 연령 변인을 계산했으며 연속형 변인으로 활용하였다. 이후 연령 변인에서 미성년 구분 연령 19세를 기준으로 성년 집단과 미성년 집단을 분리해 성년 여부를 알 수 있는 변인을 생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19세 미만인 경우는 '0'으로 하고 미성년으로 구분하였으며, 19세 이상인 경우는 '1'로 하고 성년으로 구분하였다. 성년 여부 변인은 '미성년'을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에서 통제변인으로 투입되었다.

주관적 건강수준은 '귀하는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에 4점 척도로 측정된 원 문항을 역으로 변환하여 사용하였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건강하다고 해석되며 연구모형에는 통제변인으로 투입하였다.

학력 수준은 원자료 내 학업 지속자의 현 교육수준을 묻는 문항과 학업 중단자의 최종학력을 묻는 문항을 병합하여 하나의 변인으로 생성하였다. 두개의 원 문항 모두 하위 항목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상으로 구분하고 있어 재학 중인 경우를 포함한 변인으로 만들고, 이를 토대로 중졸 이하를 '0', 고교재학 이상은 '1'로 구분해 학력 수준을 이분형 변인으로 생성해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분형 학력 수준 변인은 '중졸 이하'를 기준으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에서 독립변인으로 투입하였다.

그 외 인구사회적 특성 파악을 위해 학업중단 여부와 원가정 유형, 자녀의 취학여부 등을 살펴보았는데, 응답률을 토대로 규모와 비율을 산출하였다.

### 2) 학업 및 취업 특성

학업관련 특성은 학업 중단자의 경우 중단 시기와 학업지속 의지를 묻는 설문 문항을 활용해 정리하였다.

직업교육에 관한 내용은 직업교육 경험여부와 직업교육 시 어려웠던 점을 묻는 문항으로 분석하고, 미경험자인 경우 그 이유를 묻는 질문을 통해 내용을 파악하였다. 직업교육 경험여부는 경험자의 경우 '1', 미경험자의 경우 '0'으로 하여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고, 기준변인은 미경험자로 두었다.

취업자의 경우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관련 질문을 통해 분석하고, 비취업자의 경우 고용의지와 더불어 구직 시 어려운 점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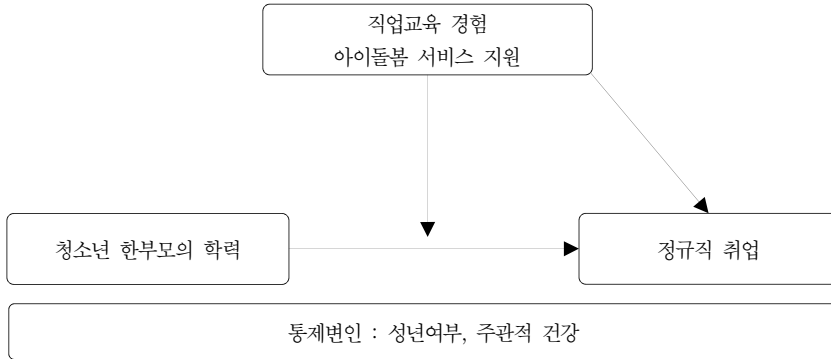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상태는 '현재 귀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까?'라는 질문과 '귀하의 고용형태는 무엇입니까?'라고 묻는 설문문항을 병합하여, 본 연구 목적에 따라 정규직 취업자, 비정규직 취업자, 비취업자로 구분하였으며, 인구사회적 특성 파악을 위한 집단 간 비교분석에 활용하였다. 이후 정규직 취업을 종속변인으로 하는 연구모형에 적합하도록 비취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를 '0'으로 하고 정규직 취업자는 '1'로 하여 로지스틱 분석 시 투입하였다. 기준변인은 비취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 집단이다.

### 3)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특성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은 분석 시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으며, 한부모가족 정책의 지원 경험을 묻는 응답 내용을 토대로 '지원 받았다'를 '1', '지원 받지 않았다'를 '0'으로 구분해 수혜율을 산출해내고, 지원 받지 않은 경우를 기준변인으로 두어 연구모형에 활용하였다.

## 3. 연구 모형

본 연구의 분석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독립변인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 수준이며, 종속변인은 정



〈그림 1〉 연구 모형

규직 취업여부이다. 모형의 통제변인은 연령을 기준으로 가변수화한 성년여부와 주관적 건강수준이다. 독립변인인 청소년 한부모의 학력수준과 종속변인인 정규직 취업간의 관계에 있어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은 조절변인으로 투입되었다.

#### 4. 분석 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V.18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조절효과 분석 시 결과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마이크로 소프트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한부모의 인구사회적 특성과 학업 및 취업관련 특성,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방법으로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였으며, 집단간 비교를 위해  $\chi^2$  검증과 일원변량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증으로 Duncan분석을 시행하였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파악과 학력과 취업 간의 관계에서 직업교육과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의 조절효과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로지스틱 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고찰 결과, 통제변인과 독립변인, 조절변인 간에는 의미있는 관련성이 예측되지 않아 변인들은 연구 모형에 그대로 투입되었으며, 일부 변인들은 가변수화하여 기준 변인을 근

거로 해석하였다. 셋째, 로지스틱 분석 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변인은 학력을 기준으로 집단을 구분하여 상호작용항 그래프를 그렸으며, 시각화를 통해 조절효과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유의수준은 .10 수준까지 제시하였는데, 통상적인 유의수준은 .05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각 변수들의 영향력을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김유심, 2007; 이윤정, 2017a) 엄격한 유의수준을 적용하지 않고, 그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 IV. 연구결과

### 1. 분석 대상자의 특성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표 2>의 내용과 같다.

연령은 전체 평균 21.1세로, 정규직 취업자의 연령(22.4세)이 비취업자의 연령(20.9세)보다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p < .01$ ), 비정규직 취업자(83.9%)나 정규직 취업자(88.9%) 모두 비취업자(70.6%)에 비해 성년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p < .10$ ). 주관적 건강 수준은 집단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학력 수준은 중졸 이하인 경우가 45%,

〈표 2〉 분석 대상자의 인구사회적 특성

(N=262)

구분		비취업 (N=204)		취업_비정규직 (N=31)		취업_정규직 (N=27)		전체 (N=262)		χ <sup>2</sup> /F
		N	%	N	%	N	%	N	%	
연령 (단위:세)	미성년	60	29.4	5	16.1	3	11.1	68	26.0	5.9 <sup>#</sup>
	성년	144	70.6	26	83.9	24	88.9	194	74.0	
	M/SD	20.9(a) / 2.3		21.5(ab) / 2.0		22.4(b) / 1.8		21.1/2.3		6.1 <sup>**</sup>
주관적 건강	M/SD	2.9 / 0.6		2.7 / 0.6		2.9 / 0.5		2.9 / 0.6		1.1
학력	중졸 이하	98	48.0	15	48.4	5	18.5	118	45.0	8.6 <sup>*</sup>
	고교재학 이상	106	52.0	16	51.6	22	81.5	144	55.0	
학업중단 여부	학업중단	142	69.6	25	80.6	24	88.9	191	72.9	5.6 <sup>#</sup>
	학업지속	62	30.4	6	19.4	3	11.1	71	27.1	
원가정 유형	양친가정	120	58.8	12	38.7	17	63.0	149	56.9	6.9
	계부모가정	14	6.9	2	6.5	2	7.4	18	6.9	
	한부모가정	43	21.1	12	38.7	5	18.5	60	22.9	
	조손가정	12	5.9	2	6.5	2	7.4	16	6.1	
	기타	15	7.4	3	9.7	1	3.7	19	7.3	
자녀 취학여부	미취학	202	99.0	31	100.0	27	100.0	260	99.2	0.6
	취학	2	1.0	0	0	0	0	2	0.8	

\*\*\*p<.001, \*\*p<.01, \*p<.05, #p<.10, a<b

고교 재학 이상이 55%로, 정규직 취업자(81.5%)의 경우 비취업자(52.0%)나 비정규직 취업자(51.6%)에 비해 고교 재학 이상의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05). 학업 중단자의 비율은 비취업자(69.6%)보다 비정규직 취업자(80.6%)와 정규직 취업자(88.9%)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p<.10). 원가정 유형은 전체적으로 양친가정의 비율이 56.9%, 한부모가정과 조손가정의 비율이 29%였다. 이 중 정규직 취업자의 양친가정의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다소 높아 63%를 나타내고 있고, 비정규직 취업자의 한부모가정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높아 38.7%를 보이고 있었는데 집단간 유의미한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자녀는 대부분 미취학 상태인 것으로 파악되어 99% 이상이었으며, 집단 간 차이는 검증되지 않았다.

## 2. 학업 및 취업 특성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취업에 관한 내용으로, 〈표 3〉의 내용은 학업관련 특성에 관한 것이다.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중단한 시기는 임신 이전이 많아 71%를 넘고 있고, 임신 중에 중단한 경우도 2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학업지속 의지를 지닌 이들은 전체에서 42.4%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였는데, 정규직 취업자가 비취업자나 비정규직 취업자에 비해 학업지속 의지를 지닌 비율이 높아 54.2%였지만,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표 4〉의 내용은 직업교육에 관한 경험으로 대상자의 31.7%가 직업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비취업자와 비정규직 취업자에 비해 정규직 취업자의 직업교육 경험 비율이 높아 44.4%였지만,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3〉 학업관련 특성

구분		비취업 (N=142)		취업_비정규직 (N=25)		취업_정규직 (N=24)		전체 (N=191)	
		N	%	N	%	N	%	N	%
학업중단 시기*	입신 이전	101	71.1	17	68.0	19	79.2	137	71.7
	입신 중	31	21.8	4	16.0	5	20.8	40	20.9
	출산 이후	9	6.3	4	16.0	0	0	13	6.8
	모름 / 무응답	1	0.7	0	0	0	0	1	0.5
학업지속 의지**	지속의지 없음	84	59.2	15	60.0	11	45.8	110	57.6
	지속의지 있음	58	40.8	10	40.0	13	54.2	81	42.4

\*, \*\* :  $\chi^2$  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표 4〉 직업교육에 관한 경험

구분		비취업 (N=204)		취업_비정규직 (N=31)		취업_정규직 (N=27)		전체 (N=262)	
		N	%	N	%	N	%	N	%
직업교육 경험*	있음	61	29.9	10	32.3	12	44.4	83	31.7
	없음	143	70.1	21	67.7	15	55.6	179	68.3
	합계	204	100.0	31	100.0	27	100.0	262	100.0
직업교육 시 어려웠던 점**	배우는 내용의 이해 어려움	14	23.0	1	10.0	1	8.3	16	19.3
	신체적으로 힘들	7	11.5	3	30.0	3	25.0	13	15.7
	교육(훈련) 비용	0	0	2	20.0	0	0	2	2.4
	적성에 맞지 않음	9	14.8	0	0	0	0	9	10.8
	교육(훈련) 중 자녀돌볼 사람 부재	13	21.3	1	10.0	4	33.3	18	21.7
	사회적 편견 및 차별	4	6.6	1	10.0	1	8.3	6	7.2
	어려운 점 없음	5	8.2	1	10.0	2	16.7	8	9.6
	기타	9	14.8	1	10.0	1	8.3	11	13.2
	합계	61	100.0	10	100.0	12	100.0	83	100.0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	교육(훈련) 정보 없었음	21	14.7	3	14.3	0	0	24	13.4
	원하는 분야가 없음	8	5.6	2	9.5	1	6.7	11	6.1
	교육(훈련) 받고 싶지 않음	10	7.0	0	0	0	0	10	5.6
	출산/육아 등으로 형편이 안됨	66	46.2	11	52.4	6	40.0	83	46.4
	비용이 부담됨	5	3.5	0	0	0	0	5	2.8
	원래 하던 일이 있음	18	12.6	3	14.3	7	46.7	28	15.6
	검정고시 등 공부/학교에 다니고 있음	13	9.1	1	4.8	1	6.7	15	8.4
기타	2	1.4	1	4.8	0	0	3	1.7	
합계	143	100.0	21	100.0	15	100.0	179	100.0	

\*, \*\*, \*\*\* : 응답내용에 대한  $\chi^2$  검증결과,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음

직업교육을 받을 때 어려웠던 점으로는 ‘교육 중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라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아 21.7%였고, 그 다음으로는 ‘배우는 내용에 대해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라는 응답이었다(19.3%).

‘신체적으로 힘들었다’는 15.7%, ‘적성에 맞지 않았다’라고 응답한 경우는 10.8%에 달하였다.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이유로는 출산과 육아로 직업교육을 받을 형편이 안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아

46.4%였고, 원래 하던 일이 있어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는 15.6%, 직업교육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받지 못했다는 응답은 13.4%에 해당하였다.

취업자의 경우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를 살펴본 결과(〈표 5〉), 자녀 양육과 집안 일에 대해 소홀해지는 점(25.9%)과 자녀를 돌볼 사람을 구하는 일(20.7%), 낮은 임금(20.7%), 직업의 불안정성(10.3%)을 거론하고 있었다. 이러한 응답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의 경우 낮은 임금(22.6%)과 직

업의 불안정성(12.9%), 신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비율(12.9%)이 높은 편이었고, 정규직 취업자들은 자녀를 돌볼 사람 구하는 일(33.3%)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검증되지 않았다.

〈표 6〉의 내용은 비취업자의 고용 의지와 구직 시 어려운 점에 관한 것이다.

비취업자 중 고용 의지가 있는 경우는 34.3%로, 이들은 구직 시 자녀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35.7%)

〈표 5〉 취업자의 상황

구분	취업자				전체 (N=58)		
	비정규직 (N=31)		정규직 (N=27)				
	N	%	N	%	N	%	
일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	저임금	7	22.6	5	18.5	12	20.7
	장시간의 근로	1	3.2	2	7.4	3	5.2
	직업의 불안정성	4	12.9	2	7.4	6	10.3
	신체적 피로	4	12.9	1	3.7	5	8.6
	자녀 양육 및 집안 일에 대한 소홀	8	25.8	7	25.9	15	25.9
	자녀돌볼 사람 구하기	3	9.7	9	33.3	12	20.7
	어려운 점 없음	2	6.5	1	3.7	3	5.2
	기타	2	6.5	0	0	2	3.4
합계	31	100.0	27	100.0	58	100.0	

〈표 6〉 비취업자의 고용 의지

구분	비취업자 (N=204)		
	N	%	
비취업자의 고용 의지	있음	70	34.3
	없음	134	65.7
	합계	204	100.0
비취업자의 구직 시 어려운 점	취업정보의 부족	2	2.9
	취업준비 시간 부족	4	5.7
	근무조건(시간, 환경 등)이 맞지 않음	23	32.9
	보수(수입)가 맞지 않음	2	2.9
	학력 및 자격이 맞지 않음	6	8.6
	나이 부적합	2	2.9
	적성에 맞지 않음	1	1.4
	자녀돌볼 사람이 없음	25	35.7
	사회적 편견 및 차별	4	5.7
	기타	1	1.4
	합계	70	100.0

그리고 시간이나 환경 등 근무조건이 맞지 않아 구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32.9%)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 3.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청소년 한부모의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율은 전체 중 30.5%로, 비취업자의 경우 경험율이 가장 낮아 24.0%로 나타났고, 비정규직 취업자의 경험율은 48.4%, 정규직 취업자의 경험율은 59.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검증되었다.

### 4.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의 지원 효과

다음은 청소년 한부모의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결과로 연구모형을 단계적으로 검증

하여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효과를 살펴본 것이다.

먼저 모델 1은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행 연구를 통해 밝혀진 주요인들을 통제하여 분석한 것이며, 모델 2는 통제변인에 독립변인인 학력 수준을 더미화하여 투입한 모형이다(〈표 8〉). 모델 1에서는 미성년보다 성년의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3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p < .10$ ), 독립변인을 투입한 모델 2에서는 통제변인의 영향력은 사라지고, 독립변인의 영향력이 검증되어, 중졸이하의 학력수준보다 고교 재학 이상의 학력 수준을 지닌 이들에게서 정규직으로 취업할 확률이 3.4배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p < .05$ ).

〈표 9〉에서 보여지는 모델 3은 모델 2에 조절변인인 직업교육 경험을 투입한 결과이며, 모델 4는 모델 3에 독립변인인 학력과 조절변인인 직업교육 경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이다. 모델 3에서 조절변인인 직업교육 경험은 정규직 취업에 영향을 미

〈표 7〉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여부

구분		비취업 (N=204)		취업_비정규직 (N=31)		취업_정규직 (N=27)		전체 (N=262)		$\chi^2$
		N	%	N	%	N	%	N	%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없음	155	76.0	16	51.6	11	40.7	182	69.5	19.2 ***
	경험 있음	49	24.0	15	48.4	16	59.3	80	30.5	

\*\*\*  $p < .001$ , \*\*  $p < .01$ , \*  $p < .05$

〈표 8〉 청소년 한부모의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1

(N=262)

구분	변인	모델 1				모델 2			
		B	S.E	P	OR	B	S.E	P	OR
통제변인	성년여부(기준:미성년)	1.136	.631	.072	3.115 *	.459	.702	.513	1.583
	주관적 건강	.049	.341	.887	1.050	.024	.348	.946	1.024
독립변인	학력(기준:중졸 이하)					1.228	.566	.030	3.416 *
	상수항	-3.222	1.183	.006	.040 **	-3.433	1.205	.004	.032 **
-2 Likelihood value		169.250				163.641			
X <sup>2</sup>						9.754*			
Nagelkerke R <sup>2</sup>						.076			

OR=Odds Ratio, \*\*\*  $p < .001$ , \*\*  $p < .01$ , \*  $p < .05$ , #  $p < .10$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델 4에서 학력과 직업교육 경험의 상호작용항이 미치는 영향력 또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검증되었다.

(표 10)의 내용은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변인을 조절변인으로 투입해 분석한 결과이다. 모델 5에서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의 직접적 영향력이 검증되었는데, 서비스 수혜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있는 경우 정규직으로 취업할 가능성이 약 3.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p < .01$ ). 모델 6은 모델 5에 독립변인인 학력과 조절변인인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상호작용항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검증되어, 학력 수준이 높아지면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절효과가 검증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그래프를 통하여 조절효과의 양상을 살펴보면(그림 2), 아이돌봄 서비스의 수혜 경험은 학력 수준이 높을수록 정규직 취업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9〉 청소년 한부모의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2

(N=262)

구분	변인	모델 3				모델 4			
		B	S.E	P	OR	B	S.E	P	OR
통제변인	성년여부(기준:미성년)	.464	.697	.505	1,591	.551	.706	.435	1,735
	주관적 건강	.105	.356	.769	1,110	.102	.356	.775	1,107
독립변인	학력(기준:중졸 이하)	1,185	.562	.035	3,272*	.798	.663	.229	2,220
조절변인	직업교육 경험(기준:없음)	.550	.428	.199	1,734	-.401	1,149	.727	.670
상호작용항	학력*직업교육 경험					1,150	1,241	.354	3,159
	상수항	-3,846	1,262	.002	.021**	-3,622	1,269	.004	.027**
-2 Likelihood value		162,023				161,045			
X <sup>2</sup>		11,373*				12,350*			
Nagelkerke R <sup>2</sup>		.088				.0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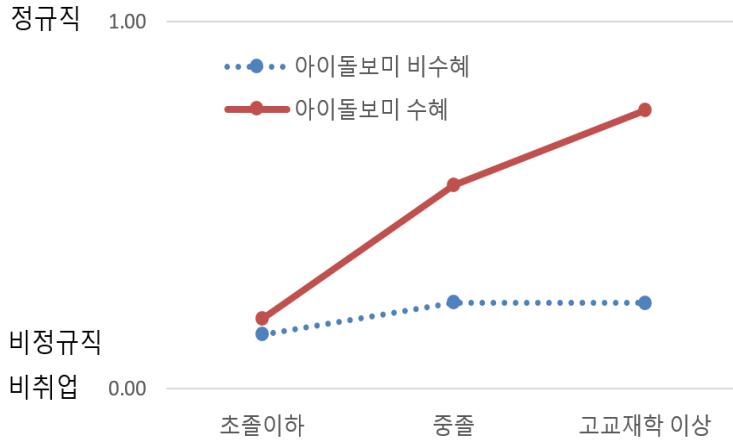
OR=Odds Ratio, \*\* $p < .001$ , \* $p < .01$ ,  $p < .05$ ,  $p < .10$

〈표 10〉 청소년 한부모의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 요인 3

(N=262)

구분	변인	모델 5				모델 6			
		B	S.E	P	OR	B	S.E	P	OR
통제변인	성년여부(기준:미성년)	.590	.695	.396	1,805	.712	.698	.308	2,038
	주관적 건강	.065	.367	.859	1,067	.111	.379	.769	1,118
독립변인	학력(기준:중졸 이하)	1,129	.558	.043	3,093*	.219	.689	.751	1,245
조절변인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기준:없음)	1,323	.427	.002	3,753**	-.403	1,143	.725	.669
상호작용항	학력*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					2,166	1,252	.084	8,722*
	상수항	-4,161	1,308	.001	.016**	-3,753	1,311	.004	.023**
-2 Likelihood value		153,883				150,221			
X <sup>2</sup>		19,512**				23,174***			
Nagelkerke R <sup>2</sup>		.149				.175			

OR=Odds Ratio, \*\*\* $p < .001$ , \*\* $p < .01$ , \* $p < .05$ ,  $p < .10$



〈그림 2〉 학력과 정규직 취업 간 관계에 미치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의 효과

## 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 한부모의 일과 삶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이슈 중 취업의 안정성 그리고 돌봄에 관한 내용을 다루어 현재 지니고 있는 인적자원 중 학력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관련 지원의 효과가 어떠한 지 검증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교육 경험과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이 학력과 정규직 취업 간의 관계에서 유의미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지 즉, 사회적 지원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분석 대상은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 262명으로, 주요 결과를 토대로 몇가지 요약해 결론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분석 대상의 평균 연령은 21세로, 취업자의 경우 성년의 비율이 높으며, 정규직 취업자의 연령이 비정규직 취업자나 비취업자의 연령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 또한 정규직 취업자에게서 고교 재학 이상의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 중단자 비율 역시 취업자가 비취업자보다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고, 특히 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학업지속 의지는 다른 집단에 비

해 높게 나타나, 청소년기에 일과 학업을 양립함에 있어 자녀 양육까지 병행해야 하는 현실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업보다 취업을 선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조사 당시 대상자 대부분은 미취학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99%), 원가정 유형에서는 한부모 가정과 조손가정의 비율이 29%였다. 또한 이들은 임신 이전에 학업을 중단한 비율이 약 72%에 달하여 상당수가 학교 밖 청소년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청소년 한부모는 가족과 사회적 지지 체계의 구조망과 기능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청소년 한부모의 직업교육 경험은 전체적으로 32%인데, 정규직 취업자의 경험률은 상대적으로 높아 44%에 달한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서는 직업교육 경험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직접적인 효과도, 학력이 미치는 영향에 있어 상호작용 효과도 검증되지 않아 취업을 희망하는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실효성에 대해 후속 연구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직업교육 경험자들은 직업교육 당시 자녀를 돌보는 이가 없다는 점과 배우는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고 적성에 맞지 않으며, 신체적으로 힘들다는 점을 거론하고 있었고, 직업교육을 경험



하지 않은 이들 역시 1순위로 출산이나 육아로 인해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내용은 취업자의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취업자 역시 취업 시 자녀 돌봄과 양육, 가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으며, 비취업자가 구직을 희망하는 경우에도 자녀 돌봄이 가장 큰 걸림돌임을 언급하고 있다. 즉,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직업교육이나 훈련, 취업 환경 조성에는 자녀 돌봄 지원을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이는 일-가정 양립에 있어 기혼 여성의 취업 지원에 요구되는 기초적 사회 환경이기도 하다. 또한 직업교육 미경험자들은 직업교육이나 훈련에 대한 정보를 얻지 못해 참여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청소년 한부모의 특수적 상황과 적성을 고려하여 직업교육을 기획하고 시행할 때 혹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정보 제공과 홍보에 보다 체계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셋째, 아이돌봄 서비스는 분석 대상 전체의 수혜 경험율이 31%이었는데 정규직 취업자의 경우 그 비율이 유의미한 수준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59%에 달하였다. 원자료의 한계로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시기가 언제였는지, 그 지속기간은 어느 정도였는지는 파악할 수 없지만, 단적으로 아이돌봄 서비스가 직업의 안정성과 유의미한 관련을 갖는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연구모형 검증을 통해서도 명확한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어 아이돌봄 서비스를 경험한 청소년 한부모들은 미경험자보다 정규직에 취업할 확률이 3.8배나 높게 나타났다. 더불어 학력이 정규직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도 아이돌봄 서비스 수혜 경험은 조절효과를 나타내어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은 정규직 취업의 가능성을 정적으로 높이고 있었다.

본 연구는 상기의 내용과 같이 청소년 한부모의 안정적인 삶, 학업과 일-가정 양립에 요구되는 사회적 지원의 지지 효과를 일부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그러나 원자료의 한계상 보다 면밀히 파악할 수 없는 개인 요인과 이들이 정규직 취업을 통

해 얻게 되는 삶의 안정성, 즉 취약성의 완화 정도는 분석하기가 어려웠다. 청소년 한부모들이 지닌 취약한 가족과 사회적 지지망이 과연 일부 밝혀진 가족 정책의 지원으로 어느 범위까지 대체될 수 있는 지 향후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의 방향성 정립을 위해 아직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를 위해서는 질적 연구를 병행함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이에 본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견고한 연구모형으로 청소년 한부모를 위한 학업과 일, 그리고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체적인 변인들을 다루기 바란다.

## 참고문헌

- 1) 강지원(2009). 국제비교를 통해서 본 한국의 한부모가족정책. 보건사회연구, 29(2), 30-54.
- 2) 국가법령정보센터(2018). 한부모가족지원법. [www.law.go.kr](http://www.law.go.kr)
- 3) 김영옥(2007). 여성노동시장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젠더리뷰, 여름호, 14-33.
- 4) 김우영·권현지(2008). 비정규 일자리 결정의 동태성과 성별 비정규직 비중의 격차분석. 여성연구, 74(1), 5-43.
- 5) 김유심(2007). 빈곤층 여성 한부모의 생활사건 스트레스와 우울에 관한 대처자원 연구-영적 안녕감, 가족자원의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6) 김지연(2013). 청소년 한부모 기본권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청소년 한부모 권리보호 개선방안' 대책 토론회, 3-15.
- 7) 김지연(2014).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 지원 방안. 2014 NYPI 청소년 정책 리포트, 5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8) 김지연·백혜정(2014). 청소년 한부모의 개인 및 환경 특성이 부모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

- 연구, 21(1), 51-71.
- 9) 김혜영·신보영·김은영·정재훈(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10) 박수미(2002). 한국여성의 인적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인구학, 25(1), 113-143.
  - 11) 박현순·나동석(2009). 한부모여성고 기혼여성의 취업관련요인 비교 연구:고정된 변수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6(4), 263-290.
  - 12) 서명선(2002). 도시저소득 모자가정 여성가구주의 취업 영향요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미간행.
  - 13) 아이돌봄 서비스 홈페이지(2019). <https://www.idolbom.go.kr/home.go>
  - 14) 여성가족부(2018a). 청소년 한부모의 당당한 삶을 응원합니다- 임신, 출산, 자녀양육, 자립 지원 강화 - 보도자료.
  - 15) 여성가족부(2018b).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 <http://www.mogef.go.kr>
  - 16) 여성가족부(2019). 한부모가족지원사업안내-사업 연혁. <http://www.mogef.go.kr>
  - 17) 여지영(2003). 여성가구주와 남성가구주의 빈곤 차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18) 오영훈(2007). 직업훈련의 소득계층별 효과에 관한 연구 - 취업가능성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19) 윤성호(2008). 여성가구주의 노동시장 참여와 지위.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2, 67-94.
  - 20) 이경란·최정숙(2017).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5, 189-236.
  - 21) 이수연(2000). 미국 10대 미혼모의 학교복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16, 165-192.
  - 22) 이용우·양호정(2017). 양육 미혼모의 자립지원 프로그램 참여경험에 관한 연구-해피맘사업 참여자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질적연구, 11(1), 115-145.
  - 23) 이윤정(2017a).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 조절효과 검증,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미간행.
  - 24) 이윤정(2017b). 청소년 한부모의 입소시설 프로그램 및 한부모가족 정책사업 수혜경험과 정신건강과의 관련성 탐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35(2), 93-112.
  - 25) 이윤정(2017c).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사회적 배제와 사회적 관계망이 양육 태도 및 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부모가족 정책 지원의 조절효과. 한국가족복지학, 57, 125-157.
  - 26) 이윤정(2017d). 청소년 여성 한부모의 스트레스가 학업지속에 미치는 영향: 아동 양육비 및 돌봄 지원 한부모가족 정책의 조절효과 검증. 대한가정학회지, 55(4), 363-383.
  - 27) 이재열(1996). 시장구조와 기업의 조직적 과정에 대한 경제사회학적 연구, 한국사회학, 30(3), 493-518.
  - 28) 이정원(2000).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주의 취업 형태 결정요인.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29) 정민경(2008). 여성가구주의 고용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경성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미간행.
  - 30) 통계청(2018.10.1). 보도자료 「KOSTAT 플러스」 2018년 가을호 발간-이용자 친화적 통계분석 간행물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강화, 한부모가구, 미혼모·미혼부 특성.
  - 31)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12). 청소년 한부모가족 종합대책연구 I : 총괄보고서.
  - 32) Contreras, J. M. (2004). Parenting behaviors among mainland puerto rican adolescent mothers : The role of grandmother and partner involvemen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14(3), 341-368.
  - 33) Dhayanandhan, D., Bohr, Y., & Connolly,

- J.(2015). Developmental task attainment and child abuse potential in at-risk adolescent mother. *Journal of child and family studies*, 24(7), 1987-1998.
- 34) Easterbrooks, M. A., Kotake, C., Raskin, M., & Bumgarner, E.(2016). Patterns of Depression Among Adolescent Mothers : Resilience Related to Father Support and Home Visiting Program,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86(1), 61-68.
- 35) European Commission(2007). Study on poverty and social exclusion among lone parent households.
- 36) OECD Family Database(2016a). Chart SF2.3.C. Adolescent fertility rates. [http://www.oecd.org/els/soc/SF\\_2\\_3\\_Age\\_mothers\\_childbirth.pdf](http://www.oecd.org/els/soc/SF_2_3_Age_mothers_childbirth.pdf)
- 37) OECD Family Database(2016b). Panel A. Poverty rate in households with a single adult and at least one child. [http://www.oecd.org/els/soc/CO\\_2\\_2\\_Child\\_Poverty.pdf](http://www.oecd.org/els/soc/CO_2_2_Child_Poverty.pdf).
- 투 고 일 : 2019년 03월 01일
  - 심 사 일 : 2019년 03월 18일
  - 게재 확정일 : 2019년 08월 20일